

BAe/사브사, 지역간 항공기 통합의 움직임

영국의 브리티쉬 에어로스페이스(BAe)사가 최근 민수사업을 포기한 스웨덴의 사브사와 자산통합 관리 및 지역간 항공기 운용지원 등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BAe는 궁극적으로 에어버스사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유럽전체의 연합에서 그 첫 단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은 사브사 주식의 35%를 매입한 후 그 후속조치로 스웨덴에 BAe 자산경영단을 급파하였다. 이 경영단은 제트스트림31 224대를 비롯하여 총 454대의 BAe 기종을 관리하게 된다. 이중 아브로(Avro)사의 RJ기종도 부분적으로 관리한다. 터보프롭기종의 생산라인을 철수하고 있는 사브사는 현재 340기종 70대이상, 2000기종 12대이상을 보유, 임대하고 있다.

BAe경영단의 로리 피셔 전무는 "우리는 파트너와 공통된 전략 개발을 구상중"이라고 밝혀 유럽 지역 운영을 통합하는데 기본이 될 벤처구성의 야망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장기적인 전략은 ATR이나 에어버스 같은 업체와의 긴밀한 관계유지로 보인다.

한편, 양사는 국제 지원네트워크를 구상하여 국제 파트너를 물

색중인 브라질의 엠브레어(Embraer)사와의 관계수립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했다. BAe사는 공식적으로 사브사 주식에 대한 협상을 지난 4월에 체결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브사의 주식은 BAe사가 35%, 투자자들은 36% 그리고 나머지는 스톡홀름 주식거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브사는 그리펜전투기, 미사일 등의 군수사업과 지역간 항공기등 민수산업이 있었으나 지난해 터보프롭 생산라인에 많은 손실을 보자 민수사업을 포기하였다.

AE31X 딜레마에 빠진 에어버스 중국과 불편한 관계

유럽의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사는 지역간 제트항공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업체를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100석급 A319M5 파생기종이 채 런치된 미 보잉사의 717-200과 경쟁할 수 있는 대체기종으로 부각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항공항천국(AVIC)의 한 고위관리는 에어버스사가 5종의

A319단축형 파생기종을 연구하고 있다는 발표에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 업체 및 정부가 95-115석급 AE31X의 재정조달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악화되었다.

산업계 내부에서는 한가지 해결책으로 에어버스사가 신속한 시장공급 및 717과의 대응을 위해 A319M5의 런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에어버스사는 중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장기간의 프로젝트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AE31X 런치노력은 기술이전 문제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었다.

한편, 몇몇의 아시아지역 관측자들은 A319M5를 AVIC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 기종은 공급자 및 운용자들로부터 빠르게 신뢰도를 쌓고 있다. 엔진 공급업체인 BMW-롤스로이스, CFM



에어버스사는 중국과의 협력을 깨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네셔널, 인터네셔널 에어로 엔진 등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 산업소식통은 미국의 노스웨스트사의 DC-9 대체사업과 같은 몇가지 대형 입찰경쟁이 신 100석급 여객기의 수요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입찰의 주요쟁점은 인도가능한 시간이다. 보잉의 717은 오는 1999년 중반경에 첫인도가 가능한데 비해 에어버스의 경우 2003년까지 인도가 불가능하여 717과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일본 소형항공기 제작 YSX 계획 포기

일본은 YSX로 명명된 전후 두 번째 여객기 개발사업 투자를 반으로 줄이고 이 계획의 초점을 부품이나 관련 장비쪽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국제경쟁 심화로 사실상 이 소형 제트기 개발을 포기할 것이며 그대신 유압장치 등 각종 부품개발을 위해 올해 10억엔(7백70만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이 결정은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미 보잉사가 YSX 계획참여에도 불구하고 B-717 소형여객기를 개발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YSX 프로젝트는 오는 2000년까지 소형 여객기를 대량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89년 통산성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5개회사에 의해 시작됐다. 승객석이 최대 1백석인 이 항공기는 지난 74년 YS-11 수송기 제작에 이어 일본으로서는 2번째 항공기 제작사업으로 계획된 것이다.

GKN, 아구스타 항공과 합병할 듯 유럽 헬기산업의 새판도 예상

프랑스의 GKN 웨스트랜드사와 이탈리아의 아구스타(Augusta) 항공간의 합병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GKN 및 아구스타항공 모회사인 Finmeccanica사는 두 헬기 자회사가 양사간 독점적인 협약을 체결키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이들의 합병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음을 알렸다.

GKN웨스트랜드사는 양해각서 협약체결까지 이탈리아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아구스타 항공의 파트너로서 독일의 유로콥터사가 대상에 오르는 것에 매우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로콥터사는 그동안 아구스타 항공과의 합병문제에 대해서는 터놓고 말하는 편이다. 프랑스 정부

대표단은 그동안 협정서상의 항공 우주/국방부문의 리스트럭처링 문제와 관련,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다.

GKN웨스트랜드사와 아구스타 항공은 그동안 군수 및 이를 개량한 민수사용을 목적으로 한 EH101 군용기를 개발키 위해 협력해 온 바 있다. 합병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으나 이탈리아 항공 우주산업계의 장기화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의 사유화 방침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Finmeccanica그룹의 구조조정이 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구스타와 GKN웨스트랜드사와의 어떤 합병형태도 헬기부분에서의 유럽연합을 마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양사는 공동선언문에서 항공우주 및 국방산업의 연합에 참여하는 유럽 헬기산업의 경쟁에 있어 동 합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로콥터의 궁극적의 연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함께 양사의 자산통합으로 향후 추진될지모르는 유로콥터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아구스타 항공은 이미 유로콥터 프랑스 및 유로콥터 독일과 함께 NH 인더스트리즈 NH90 중급

군용 유틸리티기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보잉/에어버스, 대 중국판매에 큰 기대 지난해 80여대 주문기록

지난해 중국의 항공기 조달담당(CASC)가 80대의 여객기를 중국 항공사에 할당한 이후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사는 금년에도 미국 및 유럽정상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 연이은 항공기 구매를 기대하고 있다.

보잉사는 CASC에 50대의 단일 및 이중통로형기의 추가주문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는 금년 6월에 있을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중국 또한 프랑스를 방문한 바 있어 전문가들은 이 방문을 통해 에어버스사가 추가주문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동안 이와 같이 각국 정상들과의 선언적인 계약을 통해 항공기주문으로부터 많은 정치적인 쟁점들을 이용했다.

한편, 항공기 제작사들은 중국의 항공기주문량을 미리 알고 싶어한다. 이는 생산수용능력을 조절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전문가에 따르면 CASC의 이와같은 주문은 중국이

최근 아시아 경제위기와 관련, 국제 교통량의 영향등을 고려, 계획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Load Factor는 이미 감소추세에 있는데 중국내선 요금의 인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측과 달리 중국의 항공기 추가소요는 지난해 주문량에 이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항공사들에 따르면 CASC의 할당량은 단지 총 주문량에 대한 배분일 뿐이며 에어차이나와 중국 남서항공등은 그들의 원만한 항공노선 운항을 위해 차세대 737기종의 추가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북방항공사는 지난 5월 30대의 에어버스 A320인도에 이어 10대의 A321의 추가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루프트한자, 에어버스 신형점보기 첫 주문

독일 항공사인 도이체 루프트한자가 20일 에어버스사의 신형 장거리 4엔진 여객기의 첫 구입자가 됐다.

에어버스측은 루프트한자가 이날 롤스로이스 엔진이 장착될 예정인 이 신형 항공기 10대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항공기의 인도는 오는 2003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에어버스의 최대 고객인 루프트한자는 현재 16대의 에어버스 항

공기를 운항 중이며, 추가로 기존 에어버스 30대를 주문해 놓고 있다. A340-200의 후속 모델인 A340-600 신형 에어버스 항공기는 최대 3백8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장 비행거리는 1만3천9백km에 달한다. 구매가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앞서 루프트한자측은 10대의 신형 항공기와 5대의 보잉 747-400기의 구입에 약 36억마르크(20억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한화기계, 베어링부문 독일사에 매각 항공기 부품사업 등에 주력

한화그룹이 한화기계 베어링 부문을 독일의 세계적 베어링 제조업체인 FAG사에 4억2천만 마르크(한화 3천2백억원)에 매각, 항공기 부품사업 등에 주력키로 했다.

FAG사는 국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한화기계의 5개 생산공장 중에서 창원 1,3공장, 전주 공장 등 3개 베어링 공장의 설비와 인원을 인수하게 된다. 한편 한화기계는 FAG사가 설립할 합작법인에 지분 참여를 요청해와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기계는 베어링 사업 외에 공업로, 자동화설비, 플랜트, 공작기계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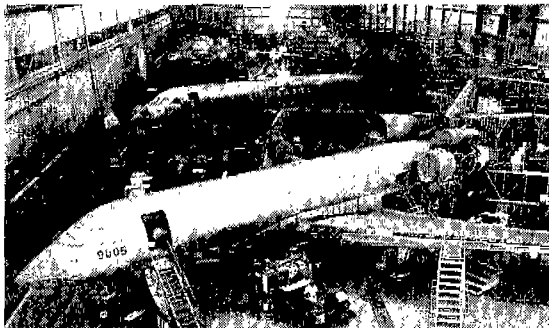
년도 매출액은 4천5백92억원, 임직원은 2천3백48명으로 베어링 부분의 매출이 전체의 60.2%인 2천7백64억원이었다.

한화기계는 베어링 부문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항공기 부품이나 환경설비 등 전략사업 부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봄바르디어, 지역간 항공기 판매호조 글로벌 익스프레스 등

캐나다의 봄바르디어(Bombardier)사가 내년 1월까지 15대의 글로벌 익스프레스 장거리 비즈니스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서 동사는 1997/8 회계연도 89대에 이어 1998/9 회계연도 150대 이상의 지역간 항공기 판매가 예상된다.

글로벌 익스프레스의 캐나다 인증은 올 6월에 마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미국 및 유럽의 인증을



글로벌 익스프레스의 캐나다 인증획득은 올 6월로 예상된다

획득할 예정이다. 동 기종의 시험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최근에는 12만 km의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하였다. 또 42,600kg의 최대 이륙중량으로 이륙, 32분만에 13km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비행시간은 14시간 29분이며 순항속도는 마하 0.8이다.

한편, 그동안 지연됐던 리어젯(Learjet)45의 인도도 금명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동 기종은 지난해 9월 인증을 획득했으나 방빙(Anti-icing) 시스템의 시험을 계속해왔다.

“아시아 향후 20년 항공여행 주도”

아시아 지역은 향후 20년간 국제 항공여행 붐을 주도, 여객기수가 거의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에어버스 컨소시엄이 전망했다.

에어버스의 존 레아히 민항영업 담당 수석부사장은 “아시아 지역은 현재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항공여행 사업이 앞으로 20년간 꾸준히 성장함으로써 민항업계의 수익을 늘려주게 될 것으로 전

망한다”고 밝혔다.

에어버스는 이날 공개한 항공시장 연례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운항시장이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6.6%씩 성장,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기 보유대수면에서도 현재 세계 전체의 25%에서 20년 후에는 3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지역의 경우 항공여객수는 연평균 5.3%씩 성장하고 여객기 보유비율은 25%에서 27%로 늘어날 것으로 에어버스측은 내다보면서 이에따라 미국에 취항하는 여객기의 비율이 현재의 38%에서 2017년에는 2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에어버스측은 20년 후에는 전 세계 민항기수가 현재의 9천7백여대에서 1만7천9백대로 증가하고 기술발달에 따라 항공기 규모도 대형화, 여객기의 평균 좌석수가 현재의 1백79석에서 2백27석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아울러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으로 볼때 앞으로 20년동안 신규 항공기 수요는 모두 1만3천6백대에 달할 것이며 이는 금액으로 따져 1조2천억달러, 연간 6백억달러에 해당된다고 에어버스측은 분석했다.